

여수돌산갯,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가공식품·체험프로그램 개발·복합체험센터 설치 등 2024년까지 총 30억 투입

여수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19.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돌산갯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금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돌산갯 복합체험센터 설치,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가공설비 구축 등 공동인프라 시설이 설치된다.

돌산갯 디저트 및 HMR(가정간편식) 상품, 돌산갯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 2, 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지정해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돌산갯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에 뛰어들어 도(서면, 발표)와 중앙심사(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9개 시·군 중 최종적으로 4개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1, 2차 산업 중심의 여수돌산갯 산업

이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3차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고흥군, 벼 육묘상자처리 연사회 개최

육묘상자처리제 올바른 사용법 대한 교육과 시연



고흥군은 최근 포두면 송산리 육묘장에서 농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묘상자처리제 사용법 교육과 시연을 실시했다.

대 육묘상자처리제 현장교육 및 연사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전국 최대 규모 사업비 20억 원의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으로 이번 연사회에서는 약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시연이 이루어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사용하면 비용, 시간, 노동력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적량살포와 살포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약제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교환권을 희망 구입처에서 오는 5월 20일까지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흥=김택영 기자

광양시, 대기중금속 측정장비 설치

광양시는 포스코 등 광양국가산단이 위치한 장소에 대기 중 중금속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중금속 측정기(포집기)를 신규로 설치한다. 시는 현재 4개소의 도시대기측정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측정항목

이 입자상물질(PM10, PM2.5)과 가스상물질(SO2, NO2, CO, O3)에 한정되어 추가로 중금속 오염물질의 추이를 모니터링해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침에 따라 3

월에 광양시 대기오염측정망 위치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위치(태인동 소재, 태인도시대기측정소)를 선정했고, 5월 중 중금속측정망을 결정·고시한 후 6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측정항목은 12개 항목(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베릴륨, 알루미늄, 갈륨, 마그네슘)이다.

광양=심종섭 기자

누구나 즐기는 평생체육 도시, 순천이 선도한다

시민 건강도모·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기반 확충 추진



순천 신대스포츠센터및유청소년수영장 전경사진

순천시는 올해 체육정책 방향을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평생체육도시 구현'으로 정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도모 및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예산은 작년보다 18억원이 증가한 158억원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투자되는 예산을 늘리고, 체육활동 확산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누구나 편하게 이용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순천시는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체육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신대지구 스포츠센터 및 수영장 준공, ▶팔마종합운동장 내 트레이닝센터 건립, ▶오천지구 가칭)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대가 함께 하는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 VR(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누구나 즐기는 체육활동 활성화

순천시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종목의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확대 운영한다.

매년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20명이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지난 3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월부터 '순천시민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순천시 전역을 직접 찾아가 에어로빅, 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사업인 해·달맞이 생활체육 교실은 동천광장, 조례호수공원, 신대광장 3곳이 선정되어 4월부터 저녁시간에 운영된다.

순천시는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순천시는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체류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 전지훈련 메카 도시로 도약, ▶수준 높은 국제·전국단위 대회 유치, ▶제61회 전남체전 대회 준비 총력을 기하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성과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지훈련장 제공, 체육시설 사용자 지원, 지역 농특산물 제공, 체력측정서비스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규모의 스포츠대회 19건에 11억을 투자하여 개최한다. 신규대회 3건(전국 아마추어 순천형씨름대회, 유소년 축구·농구) 및 계속대회 16건으로 시민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포츠 관광 유치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도 개최를 목표로 아시안산악자전거 챔피언십과 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를 유치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회에 걸맞게 국제경기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순천시에서 두 번째로 유치하는 전남체전이 2022년 4월 중에 4일간 개최된다. 22개 시·군에서 22,000명이 참가하여 22개 종목을 겨루게 되며, 2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민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할 상징물 공모를 4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남체전 개최를 위해 D-1년 즈음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